북스

Books

보성출신 김용상씨 '별궁의 노래' 펴내

보성 출신으로 1999년 한국 추리문학대상을 받은 언론인 출신 추리소설가 김용상씨가 첫 역사소설 '별궁의 노래'(전 2권)를 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별궁에 유폐됐다가 폐세자빈이 돼 죽음을 당하기까지 세자빈의 굴곡 많은 생애를 그려내면서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로서의 면모를 집중 조명했다.

소현세자빈 강씨는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한 소현세자를 따라 외국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청나라와 조선간의 무역을 주도한 최초의 여성 기업인이고 외교관이었다.

작가의 열정적인 탐문과 취재가 바탕이돼 역사적 상황 복원이 치밀하며 탄탄한 구성력으로 감동을 준다.

〈생각의 나무·각권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치열한 전투 속에 숨은 1인치의 과학

과학으로 보는 삼국지

이종호 지음

관우는 조조의 장수 방덕의 군대와 싸우다 팔에 독화살을 맞는다. 소문을 들은 화타는 관우의 팔에 파고든 독을 빼기 위해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수술을 한다. 화타는 고통을 참지 못할 것으로 여겨 관우를 묶으려고 하지만 관우는 태연히 바둑을 두면서 치료를 받는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삼국지의 명장면인 '전설적인 수술'은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고대 문명과 유적지를 연구해 오고 있는 이종호씨의 신간 '과학으로 보는 삼국지'는 치열한 전투 속에 숨은 1인치의 과학을 소개한다.

과학, 문명, 역사를 넘나드는 저술 활동을 하는 저자는 소설적 과장 뒤에 가려진 삼국지의 각종 일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새로운 재미를 준다.

그는 "관우의 수술 장면은 과장이다"고 단정 짓는다. 관우의 강직함을 보여주기 위해 소설 속에서 과장을 했을 뿐 현실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외과 수술은 환자를 수술대에 묶고 힘이 센 사람들이 환자의 몸을 고정시켜야만 했다. 술과 아편 등을 진통제로 사용했지만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술이 끝나 후에는 벌겋게 달군 인두로 환부를 지져 피를 멈추게 하고, 세균의 침입을 막았다.

또 화타는 당시 마비산이라는 일종의 마취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관우의 팔 치료에도 마비산을 사용했을 것이다.

'과학으로 보는 삼국지'는 삼국지에 숨겨져 있는 과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사진은 삼국지의 백미인 적벽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 '적벽대전'의 한 장면.

호탕한 맹장 장비의 주량에 대한 탐구도 흥미롭다. 장비는 술을 좋아했던 인물이다. 술에 취한 장비는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저자는 중국에서 처음 술을 만든 사람부터 시작해 중국 술의 역사를 짚어나간다. 장비가 살던 시대엔 아직 증류주(고량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마셨던 술은 우리의 막걸리와 비슷한 발효주였다.

주량은 체구에 따라서 달라진다. 장비는 8척이었다고 하니 1척을 20~23cm로 계산하면 그의 키는 160~184ccm로 추정된다. 또 기골이 장대하다니 몸무게는 90kg 정도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50kg의 성인 몸속에는 약 4kg(약 3.8ℓ)의 혈액이 있다고 볼 때 장비의 몸속에는 약 7.2kg(약 6.8ℓ)의 혈액이 있을 테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5%라고 보면 장비는 최대 몸속에 34㎖의 알코올이 있을 수 있다.

저자는 장비의 간이 해독할 수 있는 능력과 술 마시는 분위기까지 고려해 장비가 10말의 술을 마셨다고 할 때 그의 주량을 막걸리 16병, 맥주 21병으로 계산해 낸다.

이 밖에도 제갈량의 팔진도, 공성무기, 성의 비밀 등 전쟁에 동원된 다양한 과학적 이론을 소개한다.

삼국지의 내용에서 벗어나 당, 고구려, 로마 등의 역사도 함께 곁들여졌다. 조조의 아들인 조비의 지시에 따라 제갈량의 숙적 사마의가 고구려와 연합해 연나라를 공격하는 과정 등도 책에 담겼다.

〈북카라반·1만3천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속담 속의 경제학

노상채 지음

일반인들에게 경제학 용어 익히기는 도전일 때가 많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내 돈을 지키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상식이 많은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

증권시장 관련 기사에서 흔히 보는 '꼬리-개 효과(tail-wagging-the-dog-effect)'라는 말을 보자. 선물(先物)가격이 현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일컫는다. 시장이 투기장화하거나 거대 자본에 장악되면 꼬리인 선물 상품이 몸통인 현물에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을 흔들때가 많다. '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 파생상품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문 등에서는 친절하게 용어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독자 입장에선 읽을 때 뿐 다시 까먹기 일쑤다.

"공짜 점심은 없다" 사회적 비용 지불해야

그러나 우리 속담은 이 복잡한 경제용어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한마디로 압축·설명한다. 글자 그대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 주객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속담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광양의 포스코와 광주의 기아자동차, 그리고 부품 생산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생한다. 경제학은 이를 '산업연관효과'라고 하고, 속담은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즐거워 한다'고 보여준다.

광주시가 '디자인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 생산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열망에서다. 우리 조상들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다. 보기 좋다는 것이 '디자인'이 잘됐다는 말 아니겠는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광주 제2순환도로는 애물단지다. 통행료 수익이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해 매년 수백억원의 보전금을 물어주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비용'이다. '공짜 생선은 쥐덫에나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속담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겉으로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공짜가 아니다는 얘기다.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노상채 교수가 최근 펴낸 '속담속의 경제학'은 이렇듯 140개 속담으로 경제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 강의 20년의 노하우가 책 속에 가득 녹아있다. 속담 특유의 간결하고 정확한 어법을 빌어 경제이론을 설명하면서 삶의 지혜까지 선사한다.

노 교수는 "대학생에게는 가볍게 읽으며 경제학을 접근하는데, 직장인에게는 머리도 식힐 겸 옛날에 배웠던 경제학을 추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누림·1만2천원〉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새책

▲효재처럼 살아요=살림솜씨로 유명한 한복디자이너 겸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씨가 내면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은 에세이.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인형에 대한 남다른 애정, 살림에 대한 자신만의 창의적 관점, 보자기 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 등을 담담하게 들려준다.

〈문학동네·1만2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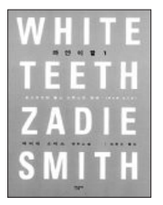
▲서정적 풍경, 보나르 풍의 그림에 담긴=소설가 겸 사회평론가인 복거일 씨가 일상에서 느낀 단상을 동서양의 시와 함께 풀어쓴 산문집. '열린 길의 노래' 등 감성적이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현실 인식을 담은 서른 편의 산문을 실었다. 〈북마크·1만3천원〉

▲와인정치학=와인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우리에게 저렴하게, 또는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한다. 뉴욕대와 시카고 대학에서 와인을 강의하고 있는 타일러 콜만은 자신의 정치학 박사논문을 토대로 쓴 책에서 화려하고 우아한 이미지에 가려진 와인산업의 그늘을 집중 조명했다.

〈책보세· 1만3천900원〉

▲느긋하게 친해져도 괜찮아=평범한 회사원인 이재명씨가 사진기와 수첩을 들고 20여 년간 전국의 산과 들을 찾아다니며 만든 산나물 도감. 먹을 수 있는 나물 391종과 식용할 수 없는 유독식물 30종 등 총 421종의 산나물에 대한 정보가 1천여 컷의 사진과 함께 수록됐다.

〈환컴퍼니·2만4천원〉



▲하얀이빨 1, 2='포스트모던 찰스 디킨즈'로 불리는 작가 제이디 스미스의 장편 데뷔작이다. 인종과 종교,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인간군상을 통해 영국의 자화상을 위트와 풍자로 흥미롭게 풀어냈다.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하얀 이빨'을 아픔과 갈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의미로 확장시킨 작가적 역량이 돋보인다.

〈민음사·각권 1만3천원〉

▲퇴계잡영=퇴계 이황이 46세부터 65세까지 지은 한시 중 138수를 엮은 책. '잡영'(雜詠)이란 특정한 형식에 치중하지 않고, 어떤 사물을 보고 즉흥적으로 지어낸 시를 의미한다. 수록된 작품은 맑은 시냇물과 푸른 산,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 저녁에 뜨는 달, 철 따라 바뀌어 피는 꽃 등을 소재로 한 시가 대부분이다.

〈연암서가·1만5천원〉

▲아메리카=대표적 문화이론가인 장 보드리야르가 미국을 횡단하면서 사유한 성찰의 글들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미국을 자동차 전용도로, 광고 간판 등으로 둘러싸인 '사막'으로 규정한다. 1994년 번역돼 출간된 것을 같은 번역자가 재번역했으며 이번에는 영문판뿐 아니라 프랑스 판본도 참조했다. 〈산책자·1만4천원〉

▲꽃의 비밀=꽃에게로 가는 향기로운 여행. 2007년 9월 'KBS 스페셜'에 방송된 '꽃의 비밀' 내용을 보완해 책으로 엮었다. 꽃이 가진 효능,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등을 추적한다. 꽃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동시에 산업으로서 꽃이 갖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다.

〈가치창조PB· 1만2천원〉